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교수



김영지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박종혁 충북대의대 교수

## 장애인보다 비장애인 위암 검진율 더 높아

### 삼성서울병원 공동연구팀

중증장애인 검진율 58%  
조사 시작 당시와 상황 역전

장애인의 위암 검진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 크게 늘었지만 비장애인과 격차는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김영지 전공의, 충북대의대 박종혁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 사이 국가위암검진율을 장애 유무와 유형, 중증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장애 유형 및 중증도에 따라 위암검진율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경우 위암검진율이 10년 전보다 31.8% 증가해 56.5%에 달한 데 반해 장애인의 경우 26%만 늘어 51.9%로 집계됐다. 조사 시작점인 2006년의 경우 장애인 25.9% 비장애인(24.7%)보다 위암 검진율이 더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상황이 역전된 셈이다.

이를 토대로 상대검진율을 분석시 장애인 비장애인 대비 89%만 위암 검진을 받고, 중증 장애인인 경우 58%로 검진율이 뚝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별로는 자폐가 있는 경우 36% 수준으로 비장애인 대비 가장 낮은 검진율을 보였다. 이어 신장장애가 있을 시 39%, 뇌병변장애 41%, 장요루장애 53%, 지적장애 54%, 정신장애 55% 등의 순으로 낮았다.

현재 위암은 정부가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만 40세~74세 국민에게 2년 마다 무료로 위내시경 혹은 위조영술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이가 두드러진 데 대해 검진기관의 접근성, 사회문화적 접근성, 의료진들의 인식 및 태도, 이에 따른 장애인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연구팀은 해석했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장애인의 위암 검진율이 낮은 이유로 의료기관까지 이동할 수단을 구하기 어렵고, 의료진 역시 장애를 우선시하다 보니 위암 검진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교수는 “위내시경을 통한 위암 검진은 위암으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장애가 있더라도 대부분 안전하게 검사 받을 수 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지레 포기하거나 미뤄버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대웅제약, 바이오의약품 할랄인증 성공

‘대웅인피온’ 2012년 설립 합작법인 세계 최초 동물세포유래 의약품

대웅인피온이 세계 최초로 동물세포 유래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대웅제약은 이 인증을 발판으로 3000억원 규모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3일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대웅인피온’이 적혈구 생성인자(EPO) 제제 ‘에포디온’에 대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대웅인피온은 대웅제약이 2012년 인도네시아 기업인 ‘인피온’과 함께 설립한 합작 법인이다. 수라바야에 인도네시아 최초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준공하여, 인도네시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인 에포디온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에포디온’은 신장투석과 같은 만성 신부전 환자와 항암환자를 위한 빈혈 치료제로, 2016년 12월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로부터 판매허가를 획득하고 2017년 4월 인도네시아 시장에 발매됐다.

출시 6개월만에 인도네시아 EPO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현재 4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대웅제약의 ‘에포디온’

대웅인피온은 에포디온의 성과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준비해 왔다. 전세계 무슬림 인구는 약 18억명으로 추산되며, 2060년에는 약 30억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는 2019년 10월부터 현지에서 유통되는 모든 음식료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제품 등에 할랄 인증 여부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할랄제품보증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대웅인피온은 이번 할랄 인증을 기점으로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허가를 준비 중인 상피세포성장인자(EGF), 성장호르몬 제제 케어트로핀 등 현지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 폐암수술 생존율 61%→72%

(5년) (2002년~2006년) (2012년~2016년)

##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폐암수술팀 폐암환자 7500명 분석 결과 수술 받은 환자 70% 완치 가능

폐암 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은 완치가 가능하다는 국내 의료진의 치료 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폐암 수술팀은 2002~2016년 폐절제술을 받은 폐암환자 7500여명의 치료 결과를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생존율은 72%로 2002~2006년 폐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 61%보다 크게 향상됐다. 치료가 어려운 폐암의 경우 수술 등 치료 이후 5년 이상 생존할 경우 완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15년간 수술법도 통증이나 감염 위험을 줄이고 폐 기능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상됐다.

가슴에 3~4cm 정도의 구멍 두세개만 뚫어 폐를 절제하는 ‘흉강경 수술’ 비율은 2002~2006년 9.7%에서 2012~2016년 74.5%로 증가했다. 특히 2016년에는 84.4%를 기록했다.

흉강경 수술은 절개 범위가 25~30cm 정도인 개흉 수술보다 수술 후 통증이나 감염, 합병증 발생 위험이 낮다.

폐엽의 일부만 잘라내는 ‘폐엽 이하 절제술’ 비율도 같은 기간 4.3%에서 20%까지 증가했다.

폐는 여러개의 엽으로 이뤄져 있는데 폐엽 이하 절제술은 암이 생긴 부위를 중심으로 특정 엽의 일부만 잘라내는 최소 절제 수술이다. 암이 생긴 엽 전체를 들어내는 ‘폐엽 절제술’보다 환자의 폐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

수술법 발전과 함께 70세 이상의 고령 수술 환자도 2002년 13.3%에서 2016년 25.3%로 증가했다.

또 폐암 1기 진단 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비중도 2002~2006년에는 전체 환자의 40.6%에 불과했지만 2012~2016년에는 56%까지 증가했다.

연구팀은 이런 변화는 기존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보다 방사선 노출량은 5분의 1 정도로 적고 폐암 등 폐 질환 발견율이 최대 10배 정도 높다고 알려진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LDCT) 검사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세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서울아산병원이 15년 동안 실시한 폐암 수술 데이터로 폐암 수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수술 기술이 발전하고 조기에 발견된 폐 선암 환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5년 생존율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JKMS)에 최근 게재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동아제약, 독일 프리미엄 비타민 국내 첫 선

### ‘오쏘몰 이문’ 롯데홈쇼핑서 론칭 비타민C 비롯 다양한 영양성분

동아제약은 오는 9일 저녁 8시40분 롯데홈쇼핑 최유라쇼에서 독일 프리미엄비타민 ‘오쏘몰 이문(사진)’을 국내 최초 공식 론칭한다고 6일 밝혔다.



오쏘몰 이문은 30년 역사를 가진 독일 건강기능식품 제조?관

매 회사 오쏘몰이 만든 건강기능식품이다. 독일에서 오쏘몰 이문은 최고급 비타민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오쏘몰 이문에는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한 비타민C를 비롯해 비타민A, B, E, K 등 다양한 영양성분과 아연, 셀레늄, 엽산 등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 제품은 액상과 정제가 함께 포장된 이중 복합 제형으로 하루에 한 번 복용하면 된다. 한 박스에는 1개월분에 해당하는 30개가 들어 있다.

동아제약은 롯데홈쇼핑 최유라쇼에

서 오쏘몰 이문을 3박스(3개월 분) 25만5000원에 판매하며, 구매 시 1일 체험 분도 함께 증정한다.

오쏘몰 마케팅 담당자인 동아제약 마케팅부 브랜드팀 김소영 차장은 “피로와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을 위해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위한 영양의 균형에 도움을 주는 오쏘몰 이문을 국내 선보이게 됐다”며 “하루 한 번 복용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오쏘몰 이문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올해의 컬러 ‘블루’로 물들인 아이템 속속

### 안정적이며 옛지있는 ‘클래식 블루’ 자연 연상시키는 ‘뉴트럴 컬러’ 주목

2020년을 대표하는 트렌드 컬러로 ‘블루(파란색)’와 ‘뉴트럴 컬러’가 주목 받고 있다.

매년 올해의 색을 발표하고 있는 색채 연구소 팬톤(Pantone)에서 2020년 대표 컬러로 ‘클래식 블루(Classic Blue)’를 선정했다. 팬톤은 “클래식 블루는 정신적 평화와 평온을 가져다 주며, 변화하는 시대에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을 내비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올해의 컬러 발표에 맞춰 패션계는 저마다 블루 아이템을 선보이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클래식 블루는 안정적이면서도 옛지 있는 컬러로 스타일링에 따라 시크한 매력을 선보이기도 하고, 록에 한층 생기를 불어넣기도 한다. 옷부터 신발, 가방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2020년 길거리를 가득 채울 블루 코디네이션에 대해 알아봤다.

해가 진 하늘 어스름을 표현한 클래식 블루는 묵직한 색감을 특징으로 모

노톤 아이템과 함께 매치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평소 꾸민구(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패션을 지향한다면 블랙, 화이트 계열과의 코디를 연출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보는 이로 하여금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트렌드 요소는 충분히 갖춰진 스타일 완성이 가능하다.

반대로 강렬하고 키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투피스 세트 코디를 제안한다. 한가지 색상으로 록을 통일 시키게 되면, 신체적인 단점 보완은 물론 스타일리시한 감성을 뽐낼 수 있다. 더불어 그린, 퍼플, 옐로우 등 블루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색상을 함께 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울러 자연을 연상시키는 뉴트럴 컬러 역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패션 업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얼씨 룩(Earthy Look)’이다. 얼씨 룩의 핵심은 자연을 닮은 뉴트럴 컬러다.

패션 마스크 브랜드 ‘에티카’는 최근 ‘에티카 에어웨이’ 마스크를 출시하며 자연에서 착안한 9종의 컬러를 선보였



올해의 팬톤컬러 블루

/팬톤

다. 대표 색상으로는 다운 핑크와 나이트 스카이 네이비, 라일락 꽃을 닮은 라일락 퍼플 및 부서지는 파도의 색채에서 따온 웨이브폼 민트 등이 있다. 또 얼씨 룩 트렌드를 반영한 자연 소재 컬러 구성으로 다양한 룩과 스타일에 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패션 브랜드 MCM도 얼씨 트렌드를 반영, ‘딤 블루 시’ 컬러를 적용한 ‘MCM 스타크 백팩’, ‘MCM 프루스톤 비세토스 벨트백’ 등을 선보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